

‘현직 vs 공직자 출신 vs 전 도의원’ 각축전

① 조합장 선거 격전지를 기다리

박일용 “안정적 수익 창출”

김동우 “현장에서 뛰겠다”

김일중 “국립휴양림 유치”

〈6〉 신안군산림조합

안정적인 신안군산림조합을 완성했다”며 “조합원이 믿고 찾는 산림조합, 돈이 되는 산림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특별한 산림조합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는 “조합원의 조경수 생산자 참여로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면서 “임업의 6차 산업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해읍 송공리에 양묘장 2,000평을 조성하고 신장리에 양묘시설 하우스 6동(1,200평)을 신규, 설치해 약 4만3,000주의 수목을 생산 중이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다출산가정 생필품 전달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 사업 활성화 추진 일환으로 조합원 우대 예금과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이용과 배당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산물과 각종 묘목 재배 농가의 직매장을 통한 임산물 유통을 늘리고 친환경 생초를



박일용



김동우



김일중

조합의 유통센터를 거쳐 고품질의 산수국 건조를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34년간 신안군에서 근무한 김동우 후보(62)는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신안군산림조합을 새롭게 ‘확’ 바꾸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동우 후보는 “조합원의 손과 발이 돼 늘 현장에서 뛰고 조합원을 섬기며 조합원을 위한 산림조합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신안군산림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신안군 환경녹지과장과 공원녹지과장, 대광개발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산림조

합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칠 준비된 일꾼이다”고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국비사업으로 임야 불법 묘지 난립에 따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천사 추모원과 추모공원 건립을 추

진해 조합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 목표도 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숲속 체험장과 산림휴양시설, 임산물 판매장을 운영해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비를 유치해 유실수 묘목을 심어 숲을 가꾸고 병해충 방제 사업도 전개하겠다”며 “조합원 농가에 임업 직불금 지급 확대를 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산림정책의 일환인 ‘나무기부제’ 활성화와 국립산림목재체험 박물관을 건립해 관광객과 방문객이 찾아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6대 전남도의회와 산림조합 감사를 지낸 김

일중 후보(72)는 투명한 경영으로 조합원이 주인 되는 산림조합을 위한 믿음직한 일꾼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김일중 후보는 “신안군산림조합은 조합원들 중심의 경영체가 미흡하다”며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조합 경영 지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남도의원 시절 국도 24호선(해제-지도)을 직선으로 기화해 노선 길이를 23km에서 11km로 단축, 주행 시간을 줄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김 후보는 바다와 산림이 연계된 전국 최고의 휴양림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힐링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고령화와 출향민들의 애로 사항인 묘역 관리를 산림조합이 중심에서 서서 대행하는 서비스를 펼치겠다”면서 “산림을 이용해 버섯, 후박나무, 약초, 고사리, 산나물 등 소득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날로 심해지는 해안침식을 전심한 사방사업 시공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조합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병·의원과의 협약을 체결해 검진과 치료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신안=이주열 기자



강진, ‘리마인드 푸소’ 체험행사 성료

강진군은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리마인드 푸소 체험행사를 가졌다.

참여자들은 수학여행으로 푸소(FU-SO)에 참여했던 학생과 인솔교사 등이다. 사전 신청과 선발 과정을 거쳐 총 36명이 참여했다.

첫날 시문학박기념관, 다산박물관 및 다산초당, 가우도를 여행하고 저녁에는 각 푸소농가에 배정돼 다음날 오전까지 따뜻한 시골밥상·농촌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청자축제장을 방문해 청자만들기, 족욕 체험, 불명캠프, 스트레스 푸소장 등 다채롭게 마련된 청자축제를 즐겼다.

고등학교 때 푸소를 경험하고 대학생이 되어 다시 강진을 찾는 한 참여자는 “따뜻한 정과 색다른 추억이 남아있는 강진을 친구들과 다시 찾아오니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라며 외갓집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강진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을 못 잊어 다시 찾는다’는 푸소체험의 취지를 살려 마련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즐거웠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가을에 열리는 갈대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해 리마인드 푸소 행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장성, 내년 국·도비 확보 선제 대응 나섰다

보고회에서 5,931억 규모 사업 발굴

장성군이 최근 ‘2023년도 공모사업 대응계획 보고회’와 ‘2024년 신규 국·도비 발굴 보고회’를 잇따라 열었다. 보고회를 통해 총 5,931억 원 규모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와 대응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군이 올해 중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2023년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장성을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전남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46건 1,599억 원(국비 774억) 규모다.

내년도 신규 국·도비 발굴 사업은 41건 4,332억 원(국비 2,952억)으로 ▲장성군 청년센터 건립 ▲한국사찰음식 쿠킹클래스 거점화 사업 ▲숲 관광스테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보건소 이전 신축 등이다. 신규사업이 31건, 계속사업은 10건이다.

장성군은 향후 정부와 전남도 예산 편성 일정



장성군이 최근 2024년도 국·도비 확보 선제 대응 보고회를 가졌다.

/장성군 제공

에 맞춘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며 “중앙부처와 전남도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나주 공산면, 화재 피해주민에 성금

최근 주택 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시 공산면 한 주민을 위해 면민 각계각층이 십시일반 운정을 모았다.

나주시 공산면은 전기에 의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주민 상구마을 A씨 가구에 성금 915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성금 마련에는 같은 마을 주

민(355만원), 공산면 이장협의회(30만원), 발전협의회(30만원), ㈜금성건설 오종순 대표(100만원), ㈜신우건설 하태형 대표(100만원), 공산농협(100만원), 나주 오씨 문중(200만원) 등에서 동참했다.

이윤태 공산면장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조충권 기자



함평천지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주거 개선

함평천지로타리클럽(회장 조성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군은 “함평천지로타리클럽 회원 10여 명이 최근 주거 취약계층 8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교체 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윤성태 해보면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어준 함평천

지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적극 발굴해 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천지로타리클럽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뿐 아니라 장학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재경강진읍향우회, 고향에 기부금 쾌척

재경강진읍향우회가 최근 강진청자축제를 기념해 고향을 방문하면서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강진읍에 기탁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강재 회장을 비롯한 재경 강진읍향우회 회원이 함께 했다.

이강재 회장은 “4년만에 열린 청자 축제로 고향을 방문하니 너무 즐겁고

또 반갑게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에 처한 고향 주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앞으로 고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겠다”고 말했다.

전달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진=한태선 기자